

RTOG 가 제시한 Multivariate Model 에 의한 PPC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후향적으로 분석 고찰하였고, 이의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PPC VS. Actuarial Survival Rate (%)

PPC (%)	5 YSR (%)	*MS (months)	#N	P
more than 80	66.4	73	27	
71 - 80	27.2	31	20	<0.05
Less than 71	3.9	12	29	<0.05

\*MS = Median survival  
#N = Number of cases

< 11 >

Carcinoma of the Tonsillar Region:  
Results of External Irradiation

J.S. Seong M.D., C.O. Suh, M.D., G.E. Kim, M.D., J.K. Loh, M.D.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Yonsei University, Yonsei Cancer Center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tonsillar reg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malignancies of the head and neck region, superseded only by laryngeal carcinomas and related tumors. It shows marked predominance in male patients and mean age is over 50 years of age. Early detection of this cancer is rarely possible due to the lack of significant symptoms. Therefore the majority of patients are in advanced stage with large primary tumor or lymph node metastasis, which poses difficult therapeutic problems.

Radiation therapy has been widely used in the treatment of carcinoma of the tonsillar region for many years.

It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in the management of early cancer, although the control rate of the advanced stage is much decreased (20-30% in stage III, IV).

This report presents our experience and results of the treatment of carcinoma of the tonsillar reg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local control

rate and the pattern of failure, through the retrospective analysis of 38 cases treated for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tonsillar region at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of Yonsei University from 1971 to 1980.

< 12 >

상악동암의 방사선치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암센터,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오원용 · 조관호 · 서창욱 · 김귀언 · 노준규

한국에서 비강 및 부비동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의 발생빈도는 후두암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두경부 악성종양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상악동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때문에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며 주변조직을 광범위하게 침윤시키기 전까지는 임상적 자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상적 자각증상이 발현되고 조직병리학적으로 상악동암으로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병변이 주변조직으로 상당히 진행되어 방사선치료 또는 수술과 같은 단독 치료만으로 완치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근래에는 방사선치료, 수술 그리고 화학요법등을 병용함으로써 치료성적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생존율도 보다 증가시켰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연자들은 1971년 1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만 10년동안 상악동암으로 진단되어 연세 암센터에서 치료받았던 약 150 예에 대한 후향성 분석을 통하여 상악동암의 치료성적 및 생존율을 알아보고 다른 저자들의 문헌고찰과 함께 향후 보다 나은 치료방침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13 >

高線量率 腔內照射器를 이용한 近接治療의 확대응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암센터, 치료방사선과학교실

김귀언 · 서창욱 · 노준규 · 김병수 · 김주향  
민진식 · 홍원표

放射線同位元素를 이용한 近接治療法 (brachytherapy)